



월드와치리스트 2024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월드와치리스트 2024 보고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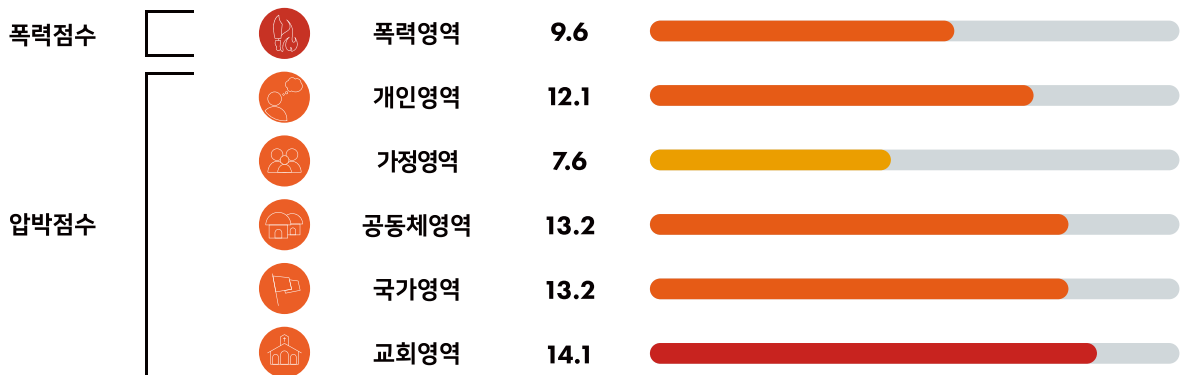
기독교 박해지수

30 위

니카라과 (NICARAGUA)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오르테가 대통령의 통치 하에서 정부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원인으로 간주한다. 이로 인해 그들은 협박, 괴롭힘, 감시, 법적 기소를 받고, 대학과 교회를 포함한 많은 기독교 단체가 폐쇄되고 몰수 당했으며, 교회를 "질식" 시키고 목소리를 침묵 시키기 위해 폭력적인 조치도 자행되었다. 이런 상황은 2018년 사회적 시위 이후 교회 지도자와 다른 사람들이 정부가 저지른 불의와 인권 침해를 계속 비난하면서 점차 심화되었다. 정부는 2021년 11월 선거 기간 중과 이후에 법치주의 존중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교회와 기독교 지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변경하였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종교 지도자와 정치범 석방을 촉구하는 교회와 기독교 지도자는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니카라과 (NICARAGUA)

국가 정보

지도자 : 호세 다니엘 오르테가 사베드라 대통령

인구 : 6,855,000명

기독교인 수 : 6,506,000명¹

주요종교 : 기독교

정부형태 : 대통령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형태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인	6,506,000	94.9
불가지론자	188,000	2.7
기타	103,400	1.5
민족 종교	32,000	0.5

출처²

니카라과는 1979년에 40년 동안의 독재에서 벗어났다. 다니엘 오르테가는 1984년 대통령이 되었고, 1990년에 퇴임하였다. 그리고 2006년에 대통령 직에 다시 복귀하여 지금까지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수년에 걸쳐 오르테가는 점점 더 독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년 11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다니엘 오르테가와 그의 측근은 부정 부패와 심각한 인권 침해의 의혹 속에서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BBC 뉴스, 2021년 11월 9일). 다자 기구와 국제 사회는 선거 과정을 비난하고 니카라과에 제재를 가하였다.

WCD 2023의 추산에 따르면 니카라과 기독교인의 80.1%가 가톨릭 신자이다. 개신교와 비전통적 복음

주의 교파가 성장하고 있으며 니카라과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2018년 사회적 불안정이 시작된 이후에 (주로 로마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중재자로, 나중에는 참관인으로 반대 단체와 정부 간의 공식 대화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2019년 3월, 가톨릭교회는 정권의 헌신 부족과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회담과 모든 적극적인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2019년 3월 8일, 아바나 타임즈). 그 후로 가톨릭교회는 국가 상황에 대한 노골적 태도로 인해 정부와 그 동맹국들로부터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었다. 그 결과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는 온갖 종류의 보복의 표적이 되어 왔으며, 오르테가 정부는 반대 목소리를 범죄화 하기 위해 법을 사용하고 있다.

WWL 2024 보고 기간 동안 교회 지도자 (특히 가톨릭 주교와 사제)와 교회 및 신앙 기반 단체에 대한 정부의 적대감이 심화되었다. 추방을 거부한 후 26년 4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롤란도 알바레스 주교와 같은 정부에 가장 비판적인 가톨릭 교회 대표자들이 체포된 사례가 대표적인 예이다. WWL 2024 보고 기간 동안

¹ 정보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² Others include Chinese folk, New religionist, Sikh, Spiritist, Taoist, Confucianist, Jain, Shintoist, Zoroastrian.

Data source: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약 222명의 정치범이 정부에 의해 석방되어 즉시 출국한 후 무 국적자로 분류되었다.

정부는 대학을 포함한 교회와 관련된 여러 단체의 등록과 법적 지위를 취소하고 (Art culo 66, 2023년 3월 8일), 기독교 소유의 재산과 언론 매체를 압수했으며 (가톨릭 뉴스 에이전시, 2023년 7월 5일), 사제와 수녀, 복음주의 목사들을 추방하였다. 보고 기간 동안에도 예배를 막기 위해 교회들을 봉쇄하고, 가톨릭 라디오와 TV 매체를 폐쇄하고 (ABC 뉴스, 2022년 8월 2일 및 2022년 7월 7일 제66조), 정당 지지자들이 교회 단체에 가입하여 설교 내용을 감시하고 부활절과 성 주간 (Holy Week) 동안의 행진을 금지하였다. 니카라과의 교회에 대한 탄압의 규모 때문에 니카라과는 미국 국무부의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핍박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모든 수준으로 존재한다.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도시는 그라나다, 지노테가, 마사야, 지노테페, 레온, 마타갈파, 보아코, 에스텔리이다.

누가 영향을 받았는가?

국외 거주자 기독교 공동체들

이 범주는 기독교 박해 지수 점수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가장 큰 단체인 로마 가톨릭 교회가 특히 정부의 독재적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때 정부는 다각적인 형태로 공격과 박해를 가하였다. 현재 국가 보복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종교 단체는 가톨릭교회로, 가톨릭교회는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사회에서 합법적인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개종자들

니카라과의 개종자들은 주로 전직 정권에 동조했던 사람들이거나, 정부 관리들이 기독교인으로 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재 야당의 일원으로 간주되며 정권으로부터 적대적으로 간주된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에는 침례교와 오순절 교단이 포함된다. 이들은 소수이지만 정권에 반대를 표명할 때 적대적으로 간주되고, 가장 큰 위협은 국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근원

독재 정치

교회 지도자들과 기독교 단체, 특히 가톨릭 신자들은 정권을 비판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면 보복에 직면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학대, 위협, 괴롭힘, 반역자 및 국가의 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체포, 기소 형을 선고 받았으며, 교회가 파손되고 예배가 중단되고 공포가 조성되었다.

공산주의와 공산주의 이후의 억압

사회주의-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학교 교육 과정이 되고, 국가 기관을 통해 시민들에게 때로는 폭력적으로 강요된다. 억압, 강도 높은 감시, 검열, 괴롭힘을 당하고, 종교 행사나 성경적인 언급으로 인해 정권이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일을 겪는다.

이것은 니카라과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웃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와 베네수엘라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조직적 부패와 범죄

부정부패는 마약 밀매와 함께 이 나라에서 깊어지고 있는 문제이다. 집권당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법부 체계, 보안군, 공공 서비스, 뇌물, 조작, 정치적 영향력과 같은 다양한 자원을 이용한다. 폭력적 준 군사 조직 (일명 "오르테가 암살단), 범죄 집단, 산디니스타 폭도들은 정부와 협작하여 반대자나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한다. 기독교인들은 보호 받을 곳이 없으므로 특히 취약하다.

남성과 여성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니카라과의 법적 체계는 신앙, 종교,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 여성의 동등한 권한 부여를 장려한다. 니카라과는 2022년 세계 경제 포럼젠더에서 성 평등 부문 세계 7위를 차지하였고, 여성 교육 성취도와 정치적 권한 부여 측면에서 선도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여성의 시민적 자유에 대한 도전이 증가하고 있으며-정권에 반대하는 기독교인, 특히 가톨릭 여성에 대한 탄압과 비 정부 여성 인권 단체의 폐쇄가 이어지고 있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폭력 - 심리적

남성

언어적 모욕, 살해 협박, 종교 물품 파손 등으로 정부와 친 정부 단체가 행하는 적대 행위 중 상당 부분은 가톨릭 사제, 주교, 그리고 기타 교회 지도자 (주로 남성)를 표적으로 삼는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니카라과의 가톨릭 성직자들을 "미국 제국주의"를 선전하는 "살인자"와 "쿠데타 음모자"라고 묘사하였다. 정부에 비판적인 교회 지도자들은 강제로 도피하거나, 체포되어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선고 받을 수 있다. 반대자들과 연계된 기관들도 정부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사회 공동체/연결망 접근 거부
- 도시나 나라를 떠나도록 강요당함
- 정부에 의한 투옥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언어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4	30	70
2023	50	65
2022	61	56
2021	63	51
2020	72	41

박해 점수는 이번 보고 기간에도 계속 증가하고, 주로 모든 영역에서 압박이 증가함에 따라 5점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법치주의 약화는 오르테가 독재 정권의 조작으로 정치적 이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시민 사회 행동가들을 침묵 시키고 사라지게 하려 하였다. 교회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법치주의 존중을 요구한 것에 대한 보복과 그들을 억압하려는 괴롭힘과 시도는 종교 지도자들을 기소하고 투옥함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이 기독교 지도자들은 선거 기간과 이후에 집권 여당인 산디니스타당의 반대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3년 2월:** 2022년 8월부터 체포되어 있던 롤란도 알바레즈 주교는 2월 9일에 26년 4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크리스천 포스트, 2023년, 2월, 12일). 그는 "국가적 청렴성을 훼손하고, 정보 기술을 통해 허위 뉴스를 유포하고, 기능을 방해하고, 권위에 대한 중대한 불복종 또는 모독, 이 모든 것이 사회와 니카라과 공화국에 해를 끼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l Pais, 2023년 2월 17일) 그는 라 모델로 (La Modelo) 교도소로 처벌 배정되어 통신이 두절된 채 구금되어 있다 (CNA, 2023년 3월 3일)
- **2023년 5월:** 당국은 여러 교구와 교회의 은행 계좌의 접근을 차단하였다. 경찰은,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과 자원을 관리하는 불법 활동"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El Pais, 2023년 5월 27일)
- **2023년 9월:** 2023년 5월부터 16개월 동안 독재 정권을 비판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가장 큰 비판자였던 하빙 파딜라 신부가 라 푸리시마 신학교에 가택 연금되어 있었다. 이 신부는 경찰의 감시를 받던 중 베네수엘라로 탈출하였다 (Despacho 505, 2023년 10월 5일)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공격을 당하거나 폐쇄된 교회와 기독교인 건물들	구금을 당한 기독교인	정부에 의해 구금되거나 처벌받은 기독교인	추방당한 기독교인
2024	347	38	22	71
2023	31	23	3	41

이 표는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신앙 관련 폭력에서 몇 가지 범주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결과는 Full Country Dossier의 폭력 영역에서 확인 가능하다..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징적인 어림 수가 주어졌고 (10*, 100*, 또는1000*) 이 결과들은 실제로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

개인 영역

기독교인들이 소셜 미디어를 포함하여 정부를 비판하며 신앙에 기반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할 때 정권의 표적이 되고 위협을 받는다. 사이버 범죄 특별법은 정권에 반대하는 인터넷 콘텐츠를 게시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체 검열을 받고 있다. 또한 기독교인이 정권 반체제 인사로 알려지면 그의 대가족 구성원들이 정부에게 심문을 받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가족은 기독교인 친척의 활동과 모임 장소의 정보를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관행이 생겼다. 특히 가톨릭 기독교인과 마샤야, 마타갈파, 레온에서 다른 기독교인들과의 만남은 정권에 대한 음모를 꾸미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국가 기관에 감시 되고 방해를 받았으며 차량이 촬영되기도 하였다. 니카라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경과 기타 종교 자료를 소유하거나 보관할 수 있지만 정부에 구금된 사람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족 영역

학교 교육 과정은 어린이들에게 정권 이념을 주입한다. 어린이들은 정권을 찬양하는 깃발과 현수막을 들고 정부 지지 집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부모가 자녀들을 국가 선전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면, 그들은 정권의 반대자로 간주되고 보복과 지역 사회의 압력을 받는다. 그들의 자녀는, "테러범의 자녀" 혹은 "쿠데타 상속인"으로 분류되고 처벌과 학대를 받는다. 반체제 기독교인은 납치, 자의적 체포, 투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도피하여 가족과 장기간 분리되어야 했다.

공동체 영역

기독교인들은 집권당과 대통령을 반 메시아적인 (half-Messiah) 인물로 추앙하고, 동시에 부통령인 그의 아내를 찬양하는 국가 선전 행사에 참석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회의 활동이나 교

회 지도자들의 연합은 국가적 배신의 표시로 간주된다. 또한 정권은 교회 지도자 없이 종교 행사를 조직하여 교회 지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신도들을 혼란에 빠지도록 한다.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기독교인들은 보복이 두려워 친 정부 행사에 참석하고 종교적 견해를 숨기는 압력을 받는다. 기독교 반체제 인사나 표적이 된 교회 지도자들에 관련된 학생들은 친 정권 학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테러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국가 영역

성명서나 사진들을 통해 정권에 대항하는 세력과 연결되는 것은 표적이 된다. 정치의 중립적 태도도 정권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방해 받지 않고 운영되는 유일한 정당은 정권의 여당 뿐이다. 민주적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기독교 정치 연합을 만들려고 시도한 기독교인들은 제재를 받았다. 기독교 시민 단체가 정권의 정치적 반대를 국가에 대한 행동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에 반대함으

로, 정부는 외국의 지원을 받는 쿠데타 계획이라고 극단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시민사회는 거의 사라졌다. 정권의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통제는 기독교인들을 쿠데타를 계획하는 테러분자와 반역자로 몰아 교회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로 조장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은 합법적인 기소나 처벌을 받지 않고, 가해자에게 처벌 면제와 정권을 위한 안전을 보장한다.

교회 영역

많은 교회와 관련 단체가 허가과 승인이 거부됨으로 지속적으로 법적 지위에서 박탈당할 위험이 있다. 이는 교회의 역할을 인도주의나 의료 지원 등으로 약화시켜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하려는 계산된 움직임이다. 종교 지도자, 주로 가톨릭 신도들은 끊임없는 괴롭힘, 여행 제한과 보복으로 인해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를 교회에 대한 박해 선동자로 비난하는 것은 위험하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니카라과는 다음 국제 조약들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하였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 방지 협약 (CAT)
4. 여성 차별 철폐 협약 (CEDAW)
5. 유엔 아동 권리 협약 (CRC)

니카라과는 다음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 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인과 그들의 활동은 당국과 주변 지역 사회의 감시를 받는다 (ICCPR 제 17조).
- 기독교 지도자들은 감시를 받고, 그들의 활동은 더욱 적극적으로 감시 받는다 (ICCPR 제 17조).
-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 가해자는 때로 처벌 받지 않는다 (ICCPR 제 2조).

이외 소수 종교 집단의 상황

미국 국무부 (IRFR 2022 니카라과)에 따르면, 비기독교 종교 단체 박해 사례에 대한 정보는 보고되지 않았다.



오픈도어의 니카라과 사역

- 목회자 제자 훈련 센터
- 기독교 문서 배부
- 교육 기술 훈련
- 박해 구호를 위한 긴급 지원
- 학업을 마치지 못한 목회자 대상 기초 초등 및 중등 교육을 위한 준비

